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3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8 30 생방송오늘아침	40 아침연속극 <장미의 전쟁>
30 KBS 뉴스	00 희망 릴레이 20 아침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 50 여유만만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지구촌 뉴스 20 TV특강(재)	10 55 일일연속극 <폭풍의 연인>(재)	40 SBS 뉴스
00 행복한 교실 55 비틀말 고운말		11 30 주말연속극 <몽양 내사랑>(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12 00 MBC 뉴스 25 늘 푸른 인생 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HD다큐시리즈 <생명의 비밀>
00 KBS 골격선 <결혼해 주세요>(재)	40 영상앨범 산(재)	1 15 신비림전터 <우리 땅 우리 명물> 30 주말연속극 <글로리아>(재)	30 HD다큐시리즈 <南道 남도>(재)
00 KBS 뉴스 10 겨울방학특선 앙크르(재) KBS 스페셜 세계탐구기획 <판타지 제1편 사람들아 회합이다>	10 엄마와 2박 3일(재)	2 40 에코 드라이브를 이식시키	00 SBS뉴스 10 건강클리닉(재)
20 TV미술포럼(재)	00 KBS 뉴스타임 05 호기심대장 백악이(재) 3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 05 왕중군의 아름다운 초대 스페셜	10 우리아가야 달라졌어요(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겨울방학특선 다큐 LIFE <생명의 대역전 제4편 바다의 먹이사슬>	00 TV 유치원 30 뿌띠뿌띠 유즈(재)	4 00 MBC 뉴스 10 우리아이 미래발견 재능무한대(재) 40 버리의 시간여행	00 특별기획 애니메이션 <내친구 해치>(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5 20 동물의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람의 가족 30 성공애감	5 10 한술밥	00 SBS 뉴스플러스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한국인의 밥상	10 생생정보통	7 45 일일 시트콤 <몽양 내 사랑>	10 시사타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25 일일연속극 <웃어라 동해야>	40 KBS 뉴스타임 <광주전남> 50 체할! 삶의 현장	8 15 일일 연속극 <폭풍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수목드라마 <프리지던트>	9 55 수목미니시리즈 <마이 프린세스>	55 드라마 스페셜 <싸인>
00 역사스페셜 <누이를 사랑한 왕자 전전리 각석의 비밀> 45 세계는 지금	05 해피투게더	10	15 한밤의 TV연예
00 KBS 뉴스라인 40 현장포토 동행		11	
25 KBS 뉴스 35 KBS네트워크 기획 <남도연인 2천리 것별과 바다의 선율>		12	25 나이트 라인 45 기차타고 세계여행(재)

EBS			
06:00 세계테마기행 <대지연의 매혹 서호주>	09:50 한글기차 치포	15:0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55:2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20:00 세계의 교육현장 <스페인편>
06:40 한국기행<서울>	10:00 EBS 10시 뉴스	15:4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20:30 EBS 뉴스
07:00 다큐 인생 2막	10:10 60분- 부모	16:00 레온	20:45 지식채널e
07:30 세계자연문화유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김육란의 후디나 만드는 실속요리>	16:05 알밤달성 호기심 마을	20:50 세계테마기행 <남아시아의 동물, 방글라데시>
07:35 빨간머리 앤	11:40 TV일화사정관 <서울 일목고>	16:20 또또바를 찾아라	21:30 한국기행 <호랑>
08:00 덩동영 유치원	12:30 세계의 교육현장 <남아프리카 교육현장>	16:40 신글병글 피지	21:50 다크프라이드 일더품 사이언스 <바벌의 과학, 풍력발전>
08:20 카툰키드 실험실	13:00 TV형성대학	16:50 톨소여의 모험	22:40 국한 직업
08:45 빵이대장 뽕뽕이	09:00 아가통통 버디	17:40 출동 원더펫	23:10 히나뽀인 지구
09:00 아가통통 버디	09:15 똑똑박사 에디	18:05 생방송 톡!톡! 보나하니	00:00 지식채널 e (재)
09:25 다크동화 달빛방	14:20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나일강의 선율, 이집트>	19:05 크로스게임	00:0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09:35 클로이의 요술우정		19:30 미래를 보는 소년	00:45 EBS 스페시스 공감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4:10 수능열기 예비 고3 <김세익씨의 수학11>	08:00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의학·치의학·약학 적성시험 대비강좌
05:00 고1 예비과정 <곽정원씨의 수학(3)>	09:00 중2 예비과정 <역사(상)> 09:40 <과학>
05:50 수능열기 예비 고2 <이은주씨의 수학11>	10:20 중학 국어문법 특강 11:05 Sing Sing 영어동요 11:15 EBS 클럽뱅크(1)
06:40 수능열기 예비 고3 <외국어영역(1~3)>	11:35 Easy Job English 11:50 중3 예비과정 <사회> 12:30 <과학>
11:20 수능열기 예비 고3 <언어영역(1~2)>	13:10 중2 예비과정 <역사(상)> 13:50 중학영어 독해 Level 3 14:30 EBSe 초등영어 14:50 EBS 클럽뱅크(2)
13:00 수능열기 예비고 2(재) <언어영역>	15:10 Sing Sing 영어동요 15:20 Gra Gra Grammar (L3) 16:20 초등 2년 겨울방학 생활 16:40 초등 4년 겨울방학 생활 17:00 초등 6년 겨울방학 생활 17:20 한자교육드라마 <어린이 孫子兵法>
14:00 수능열기 예비 고3(재) <심씨의 수학 1>	17:50 중학 국어 문법 특강(재) 18:30 중2 예비과정 <과학>(재) 19:10 중3 예비과정 <사회>(재) 19:50 <수학(1~3)>(재) 21:50 중2 예비과정 <역사(상)>(재) 22:30 중3 예비과정 <과학>(재) 23:10 Magic 중학영문법 Level 2 24:00 EBS 생활경제(재)
15:00 <김세익씨의 수학11>	23:50 EBS학술자료실<문학사>(재)

제4회
광주바둑협회장배

빨라지는 신진대사

초등 최강부 결승전 총보(1~140)

白 김지승 4단 (양천초 6)

黑 홍정진 4단 (송화초 6)

요즘의 어린이 고수들은 바둑학원에서 체계적으로 바둑을 배우는 관계로 이론에 밝은데다가 생활공부를 많이해서 수 읽기에도 능하다. 약점이라면 전체를 보는 눈과 임기응변이 경험이 많은 성인들 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전 경험과 시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바둑계에 신진대사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 바둑의 두대국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지승 군은 서울에 유학하여 전문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지며 시종 불안감없이 반면을 운영하다가 상대가 실수하는 순간에 가져왔이 응징하여 승리를 결정짓는 능력이 탁월한 것을 볼 수 있다. 홍정진군의 패인은 백이 26으로 상반

에 쳐들어왔을 때 흑 27로 치받은 수로 이 수로는 오른쪽에 두어 선수하고 백 한점을 제압해야 했다. 또 백 38로 좌상귀에 응수타진해 왔을 때 흑 39로 막은 수도 40에 두어 실리를 확실히 할 곳. 백 48까지 크게 살아서는 실리가 부족한 형국이 되었다.

마지막에 흑 107로 108에 늘어두었으면 아직도 어려운 형제였다. 백 112로 돌파당해서는 백 승이 결정되었다. 백 140 수 끝. 백 불계승.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글러브”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

정재영, 청각장애인학교 야구부 코치 김상만 역 맡아

“따뜻한 매력이 있는 영화입니다. 특정 연령대만 느끼는 성장 드라마나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대가 어우러져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배우 정재영(사진)은 강우석 감독의 영화 ‘글러브’(20일 개봉)에서 청각장애인학교 야구부 임시 코치 김상만 역을 맡았다. 그는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최후의 프로야구 선수였다가 ‘퇴출’ 취급 받는 신세가 된 사교몽치 투수다. 그런 그가 임시 코치를 억지로 맡았다가 차츰 아이들과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유머와 감동으로 그려낸 영화다. 그는 “실화에 근거한 영화라 ‘리얼

리티’가 있어야 튀지 않고 전체에 묻어 날 수 있을 거라고 봤다”면서 “제가 연기를 했지만 ‘왕년에 야구선수였나?’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명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관념적인 말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는 말을 쏟아붓는 게 꽤 있는데 (관객이) 낯설 들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촬영할 때 감독님이 잘 잡아주셨고 저는 배우지만 전체의 리듬을 알리고 많이 신경 썼어요.” 그는 연습 경기에서 대패하고 나서 선수들과 함께 학교까지 뛰어가다 선수들이 탈진해 주저앉은 대목을 명장면으로 꼽았다. 상만은 “소리는 귀로

만 듣는 게 아니다”면서 “소리를 질러! 가슴이 울리도록 소리를 질러!”라고 외치고 아이들은 가슴에 맺힌 소리를 내뿜는다. “가장 진정성 있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못 듣는 애들한테 제가 목 쉬어 가면서 외치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수화 통역을 보지 않고 저를 보고 있죠.” 그는 성장통을 다룬 스포츠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스포츠 영화는 성장 드라마고 저를 되돌아보게 하죠. ‘글러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글러브’를 찍기 전에는 야구부원 역의 어린 배우들과 함께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투구 자세를 익히고 평고 타격(수비 연습을 시키려고 공을

날리는 일) 연습을 하는 정도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재영은 지난해 강우석 감독의 스릴러 영화 ‘이끼’에서 마을 이장을 연기해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등 2관왕에 올랐다. 주연상을 받은 적은 없지만, TV로 생중계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3일(음 12월 10일 戊辰)	
	36년생 내 거 주고 속상한다. 48년생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60년생 조심을 다해도 꼬일 수도 있다. 72년생 발전이 약 속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84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기나 자신은 우울하다. 행운의 숫자 : 03,32
子	
	37년생 부부사이 사람이 신생한다. 49년생 사기꾼이 달려드니 주변 경리하라. 61년생 사람이 소란하니 하루를 조심히 보내라. 73년생 분령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85년생 시비 생겨도 자신이 유리하니 걱정없이 지내라. 행운의 숫자 : 21,39
丑	
	38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50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며 지내라. 62년생 예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 74년생 여유 있는 하루로다. 행운의 숫자 : 05,45
寅	
	39년생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과는 대 손해로 연결된다. 51년생 융호상박이니 그 결과는 반반이다. 63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들. 75년생 전향위복이 되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8,43
卯	
	40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 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라. 52년생 중간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64년생 종인이 나타나서 결말을 내놓는다. 76년생 큰 덕은 자신에 있다. 행운의 숫자 : 17,37
辰	
	41년생 특별한 협조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 53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이니 선택을 숙고하라. 65년생 가내가 시끄럽다 인자함을 보여주라. 77년생 과욕만큼 일을 수이지만 배플면 득이 온다. 행운의 숫자 : 07,43
巳	
	42년생 결과가 의처질만 좋은 하루다. 54년생 날의 말로 손재가 우려되니 가려서 들으라. 6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된다. 78년생 모든 일이 지체되고 결과도 늦어진다. 행운의 숫자 : 09,39
午	
	43년생 모든 일이 절제나 종래는 안정하게 지리한다. 55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된다. 67년생 부부사이엔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79년생 불평사가 발생할 수다. 행운의 숫자 : 14,42
未	
	44년생 비정한 고종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6년생 새문서가 눈물 낸다. 68년생 예기치 못한 억속으로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80년생 이해있는 선금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34
申	
	45년생 부부사이를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57년생 자녀 직업으로 인해서 고적이 중중하니 마음을 다스리라. 69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신생된다. 81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행운의 숫자 : 03,41
酉	
	46년생 증식하는 형상이고 주변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수 선다. 58년생 어려서는 지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70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급변을 조심하라. 82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행운의 숫자 : 11,29
戌	
	47년생 전체 속에 실리도 있다. 59년생 평상일을 집중하라 발전이 있으리라. 71년생 화려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83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륜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 01,40
亥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위	한자 이야기
I know how important support can be 지지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A : I cannot wait to get out of here today. B : I hear you. Are you going to play golf? A : No, I don't have time. My son has a baseball game tonight. B : That is nice of you to go to his games. A : I know how important support can be. A :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곳에서 자리를 떠나야 하거든요. B : 알았습니다. 골프치러 가실 겁니까? A :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내 아들이 오늘 밤 야구 시합을 하거든요. B : 듣기 좋네요, 선생님께서 아들 시합에 가신다고 하니 말입니다. A : 지지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 get out of ~ = ~에서 자리를 뜨다 * 점심을 들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 I don't even have to time to take lunch.	金さんは日本語が出来ますか。 김 상은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까 A : 金さんは日本語が出来ますか。 B : いいえ、全然 出来ません。 A : では、出来る外国語は何ですか。 B : 英語は少し出来ますが、日本語は全く駄目です。 A : 김 상은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까. B :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A : 그럼, 할 수 있는 외국어는 무엇입니까. B : 영어는 조금 합디만, 일본어는 전혀 안 됩니다. [단어정리] 外国語 외국어 全く 전혀+부정 出来る 할 수 있다 駄目だ 안된다 英語 영어 日本語 일본어 全然 전혀+부정 少し 조금+긍정	马马虎虎 māma hūhu 대충대충 글자 그대로 보면 말(馬) 둘에 호랑이(虎) 두 마리입니다. 동물원? 중국어 의미는 대충대충, 열렁뚱방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이면 马马虎虎를 설명하며 '그 유래가 있긴 한데 이야기가 재미없으니 그냥 잊만 알고 계세요' 라고 해도 학생들은 재미없어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주면 또 재미없다고... 옛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말과 호랑이를 구분 못하고 대충 그렸다고 합니다. 호랑이인지 말이지를 그려 벽에 붙여 놓고 살면서 그의 아들은 그 그림을 보고서 자연 호랑이와 말을 혼동하게 되었겠죠.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산 속을 지나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말인줄 알고 타려고 하자 그만 호랑이가 어흥...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유래하여 말인지 호랑인지도 구분 못하는 불분명함 또는 흐리멍덩함 또는 잘못된다는 대충대충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전설. 괜히 했나?	泣斬馬謖(읍참마속) 울음, 뱀 참, 말 마, 일어날 속 泣斬馬謖(읍참마속)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하여 질서를 바로잡음을 이르는 말이다. 촉(蜀)나라의 제갈량(諸葛亮)은 가정(街亭)의 전투 책임자로 임명된 마속(馬謖)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제멋대로 싸우다가 패하자, 그 전날의 공과 두터운 친분에도 불구하고 마속의 목을 베어 전군의 본보기로 삼았다. 장관이 제갈량을 보고 "앞으로 천하를 평정하려 하는 이때에 마속 같은 유능한 인재를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하고 말하자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손부가 싸워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전쟁을 시작할 처음부터 군율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적을 평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출전 : 삼국지(三國志) 촉지(蜀誌) 마속전(馬謖傳) ※급수 : 한자능력검정 3급, 2급, 5급, 준독급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